

투데이 칼럼

할아버지의 서릿발 훈육

우리 선조들은 조부모가 손주와 함께 생활하면서 격대교육(隔代教育)을 시켰다.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과 예의범절을 통해 인성을 함양 시켰다. 부모는 욕심이 지나쳐 아이를 감정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너그러운과 절제, 풍부한 연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이 갖춰야 할 덕목을 익혔던 것이다.

다음은 박목월 시인의 수필 '명주 안감'에서 정민교수가 쓴 글을 따온 것이다.

「아들은 아침저녁 심리씩 절어서 학교에 갔다. 혹독한 겨울 날씨에 내의를 입지않아 광목옷이 뽕뽕이 얼면 사타구니가 굽혀서 따가웠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흰 명주옷을 뜯어 아들의 바지저고리에 안을 받쳐 주었다. 살결에 닿는 감각이 간지러울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했다. 우연히 손주의 옷 안자락을 보게 된 할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렸다. '당장 벗어라' 그러면서 '어린 것을 저리 키워서 뒤에 쓰겠느냐'며 서릿발 호통을 치셨다. 그날 밤 어머니까지 큰덕으로 불려가 할아버지의 큰 꾸짖음을 들어야만 했다. 손주는 다시 그 옷을 입지 못했다. 낚아서 못 입게 된 아버지의 명주옷을 재활용해 아들 옷의 안감을 대

준 것마저 할아버지는 용서하지 않았다. 당장 그 옷을 벗겼다. 불편해도 참고 인내하는 끈직한 정신을 길렀다. 아무리 손주가 귀엽고 소중한데도 뜻이 강한 할아버지는 손주를 차고 맏게 키웠다. 훗날 그 손주는 한그루 교목(喬木)처럼 실력하고 굳세게 키우려는 할아버지의 준엄한 마음을 알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했다.」

조선족소학교 6학년 황현승이 배를 맞은 할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장원한 작품의 요약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무섭고 싫다. 나를 예뻐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할아버지를 멀리한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집안이 조용했다. 사방을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다. 내 눈은 화장대에 있는 돈동치에 꽂혔다. '이게 웬 떡이냐. 할아버지는 기억이 흐려서 돈을 훔쳐도 모르실 거야' 얼른 한장을 빼서 지

갑에 넣었다. 시장에서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아무런 기미도 채지 못하셨다. 그날 오후, 집에서 나와 훔친 돈으로 먹고 싶었던 것을 사먹었다. 문득 할아버지의 무서운 얼굴이 떠올랐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느님,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마음속으로 빌었다. 집에 오니 할아버지께서 묵묵히 담배만 피우고 계셨다. 나는 삼금삼금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현승아 할아버지의 부름에 화들짝 놀라며 다가갔다. 고개를 든 순간 할아버지의 눈과 마주친 나는 어찌할바 몰랐다. '오늘 반성할게 없느냐'고 물으셨다. 모기만한 소리로 '없는데요.'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일어나 케떡에서 회초리를 꺼내셨다.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앞드려 빌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할아버지

김재춘

전 원주동양초등학교장



독자제언

가정폭력 적극적인 신고로 도움 받아야

가족간의 구성원을 이룬 가정은 따뜻한 보금자리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사는데 힘들어도 가족간에 서로 이해하며 격려해 준다면 그래도 우리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안고 산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친 하루를 마치고 가족의 품이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것이 두려워 거리를 헤매다 어디선가 춥고 위태로운 밤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있다. 또 남편의 폭력에 수년간을 시달리며 참고 견디다 끝내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서야 상담소를 찾은 아내들이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가? 그들에게 가정은 안식처가 될 수 없고 가족은 날보다도 못한 사람인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한 구석에는 가정

폭력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여성과 아동들이 여전히 있다. 물론 가정폭력은 빈도와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 어떤 경우의 폭력보다도 피해자가 겪게 되는 몸과 마음의 상처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세상 밖에서는 부족한 나를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을 것이다. 가정 내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평소 생활속에서 보여주고 표현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형태로의 가정폭력은 용납해서는 안되며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 인식하고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경찰에 신고해 적극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방곡선 전주원안경찰서 남문지구대 경찰

독자제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전담경찰관 이용하세요

경찰에서는 2015년부터 범죄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각 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피해자전담경찰관 제도는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비롯하여 심야 조사 시 교통비 지원, 감시으로 오염된 피해 장소의 청소비용 보상 등 피해자에게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 범죄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급전직 지원 및 법률적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 일례로 폭행이나 상해사건 등 신체적 범죄피해자들 상당수는 병원 치료 시 국민건강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오해하며, 치료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폭행 등 범죄피해자가 치료비까지 부담해 이종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과 협력, 치료비 지원 및 연계해 주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피해자지원제도가 있으나, 범죄피해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할 때, 각 시 청문감사실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찾아가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연보배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사위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도내 시군 지자체 재정 '빨간불'

도내 시군의 재정이 빨간 불이다. 보도된 기사를 읽어보니 심각한 수준이다. 전북이 오래도록 가난한 지역이라지만 이 정도로 재정이 어려워 줄은 볼랐다.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였지만 정작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나마 좀 낫다는 전주시가 30%대 수준이고 군산시와 완주군이 24%대를 조금 상회하고 있다. 익산시가 17%대이고 김제시와 정읍시는 간신히 10%대를 턱걸이 하고 있다. 나머지 남원시를 비롯해 다른 군 단위 지자체들은 10% 아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이번에 밝혀진 내용을 보고 도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뻔하다. 그래서 예전에 한 두번 담부했던 게 아니지만 내실 있는 살림이 요망된다. 전북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살림살이를 위해서 생각이 많아야 한다. 내실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서 보통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전북 지역은 안팎으로 문제가 많다. 전국에서 경제 발전이 가장 늦은 고장을 꼽으려면 전북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이웃 전남과 비교해 오십보백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전북의 경제 성장이며 살림살이라는 게 도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도민의 소득이 전국 최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 직시하는 마음 바탕 위에서 전반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한다. 소득은 전국 최저인데 근로빈곤층이 전국 최다라는 진단이다. 이같은 지적에 늘 하는 말이 그렇고 그렇지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 안 된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전북의 살림살이 현실을 밝은 쪽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지역 살림과 관련해 전북도는 잘 판단해야 한다. 해마다 재정이 어렵다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십 수년 간 지속된 경기침체만을 탓할 수는 없다. 전북도는 내실을 위해서 자체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정부는 손만 내미는 지자체를 끝까지 보고 있지 않다. 전북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살림의 내실을 위해서 고민해야만 한다.

전북 관광 내실 다져야

지금은 전북 관광의 내실을 다질 때이다.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신경써야 할 곳에 신경을 써야한다. 지금 이대로는 전북 관광의 미래가 밝지 않다. 최근에 문광부가 국민 여행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북 관광의 빛과 그림자랄까 그 장점과 단점이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 관광객 숫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이

해하 할까. 전북도와 관광사업 관계자들은 분석을 잘해야 한다. 전북 관광의 활기를 위해서 진단을 잘 내리고 그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힘을 쏟아야 한다. 새로운 관광홍보 전략과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제 관광 분야도 지역 경제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쪽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 여행으로는 마음에 들어도 재 방문 지역으로나 추천지역으로는 점수를 못 받고 있다면 그 관광 수익은 보나마나 없다. 겉으로는 그럴듯해도 속된 강장 바로 그것일 터이다.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전북 지역이 개인여행지로서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국민 여행지로서 전국 2위에 랭크돼 있으면서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지역이 못 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지역도 아니라는 거다. 이것은 얼핏 생각할 때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개인여행지로는 그 평가가 우수한데 다시 찾고 싶은 지역도 아니고 추천하고 싶은 지역도 아니라는 말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

그러므로 전북 관광의 브레인들은 활성화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 관광객은 물론이고 중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관광객도 유치해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도록 해야 한다. 수익을 미리 예측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것은 온전히 관광사업 종사자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내실 다지기 행보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